현대차그룹 GV80 등 4개 차종 美 오토트레이더 '베스트 신차'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기아 브랜드 4개 차종이 미국 자동차 사이트 '오토트레이더'가 선정한 '2021 베스트 신차'에 선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토트레이더의 '2021 베스트 신차' 12종에는 현대차 '싼타페', 제네시스 'GV80(사진)', 기아 '쏘렌토'와 'K5'가 포함됐다.

오토트레이더는 매년 해당 연도나 다음해 연식의 모델 중 7만5000달러 이하의 차량을 대상으로 인테리어의 편안함, 제조 품질, 기술, 운전 경험 등을 평가해 5점 만점에 4점 이상 받은 차량을 '베스트 신차'로 선정한다. 'GV80'에 대해서는 "더 비싼 유럽의 경쟁 차종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동급 최고의 차"라고 극찬했다.

'2021 베스트 신차'에는 혼다 '어큐라 TLX', 쉐보레 '타호', 포드 'F-150', 렉서스 'IS', 볼보 'XC40', 도요타 '벤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성열 기자

포르쉐 '신형 911 GT3' 16일 최초 공개

포르쉐 AG가 1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기준) 8세대 포르쉐 '911(992)'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GT 모델인 신형 '911 GT3(사진)'를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형 '911 GT3'는 개발 과정부터 포르쉐 모터스포츠 기술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레이스 트랙과 일상 모두에서의 성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새로운 GT 스포츠카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는 자사의 디지털 웹 포맷 포르쉐 뉴스 TV(Porsche News TV)를 통해 방송되며 영어와 독일어로 시청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테슬라 vs 현대차…연초부터 뜨거운 전기차 경쟁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모델Y(왼쪽)' 스탠다드 모델과 2021년형 '모델3'의 가격을 각각 5999만 원으로 책정했다. 업계에서는 488만 원이나 내린 '모델3'의 가격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월 공개를 앞둔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5(오른쪽)'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진제공 | 테슬라·현대차

가격 내린 테슬라, '아이오닉5'에 떨고 있니?

테슬라

모델Y·모델3 '5999만원' 책정
6000만 이하 보조금 100% 꼼수
풀 셀프 드라이빙은 최대 경쟁력
낮은 마감 품질·A/S 불만 약점

VS

현대차그룹

아이오닉5 'E-GMP' 첫 적용
5분 충전에 100km 이상 주행
220V 전기 공급 차별 포인트
자율주행과 합리적 가격 관건

2020년 기준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 판매 1위 브랜드는 테슬라다. '모델3', '모델S', '모델X' 등 3가지 모델을 통해 누적 판매량 1만1826대를 기록했다. 주력 모델은 중형 세단인 '모델3'다. 1만1003대를 판매해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경쟁 모델인 현대차의 소형 SUV 전기차 '코나'는 8066대를 판매하며 2위, 기아 소형 SUV 전기차 '니로'는 3199대를 판매하며 3위(수소 전기차 넥쏘는 제외)에 올랐다. 글로벌 시장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테슬라의 기세에 1라운드는 판정패한 셈이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업계 전문가들은 차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주행 가능거리와 성능이 대폭 강화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될 올해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오닉5' 출시 앞두고 가격 인하한 테슬라

연초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에는 전운이 감돈다. 선제공격은 테슬라가 했다.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가 탑재될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CV(프로젝트명)' 공식 출시(2월 공개, 3월 유럽부터 순차 출시)를 앞둔 12일, 중형 전기 SUV인 '모델Y'와 2021년형 '모델3'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선제공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꼼수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격 책정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의 가격은 기존보다 480만 원 인하한 5999만 원으로, 더 다양해진 활용성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모델 Y'는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의 가격을 5999만 원으로 책정했다.

일명 '999 마케팅'을 구사한 이유는 달라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때문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9000만 원을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Y'의 가격을 5999만 원으로 책정해 보조금을 100%(최대 8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5999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조금을 타기 위한 꼼수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과연 '아이오닉5'는 '모델Y'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올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아이오닉5'와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될 '모델Y'는 전력을 모두 공개했다. 스텐다드레인지, 롱레인지, 퍼포먼스레인지 등 3가지 트림을 선보이는데 보조금이 100% 지급되는 스탠다드레인지 트림(후륜구동)의 가격은 5999만 원이다.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340km, 최고 속도는 217km/h, 0~100km 도달 시간은 5.6초다. 시트 구성은 기본 5인이며, 7인승 모델도 선택할 수 있지만 추후 출시 예정이다.

롱레인지 모델(듀얼 모터 사륜구동)은 주행 가능거리는 511km로 늘어나고, 0~100km 도달 시간도 5.0초로 빨라지지만 가격도 6999만 원으로 올라가 정부 보조금은 50%만 지급된다.

'모델Y'는 '모델3'와 부품의 75%를 공유하고 있다. 15인치 대형 모니터를 통해 모든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같다. 하지만 승용 모델이 아닌 크로스오버 SUV 모델로 설계된 만큼 높아진 더 여유로운 헤드룸과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다. 운전석 공간부터 뒷좌석 끝까지 연결되는 확장형 글래스 루프를 통한 뛰어난 개방감도 장점이다.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이다, 별도의 옵션(904만3000원)을 구매해야 해 추가 부담이 따르지만 고속도로 진출입 차로에서까지 작동되는 자동 주행, 저속 주행 차량 추월,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주차된 차량 호출 등 한 발 앞선 반자율주행 기술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모델3' 출시 이후부터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던 낮은 마감 품질과 A/S 불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테슬라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준중형 크로스오버(CUV)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자, 핵심 전략 차량이다.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이하 WLTP 기준)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초고속 급속충전기 사용시 10%에서 80% 충전까지 단 18분이 걸린다. 5분만 충전해도 1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초급속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조향 시스템은 더 정교한 조향감을 갖춘 랙 마운트 방식(R-MDPS)이 채택됐다.

실내 공간은 아직 공개된 적이 없지만 사용하지 않을 땐 스티어링휠을 앞쪽으로 약간 밀어 넣어 실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센터 콘솔과 앞·뒤 좌석이 자유롭게 움직여 다양한 공간 구성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술은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다. 일반 주택 공급 전력(3kW)보다 큰 3.5kW의 고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실내외에 각각 1개씩의 총 2개의 포트를 마련했다. 캠핑을 떠날 때 차량용 냉장고를 차 안에서 가동시키며 이동할 수 있고, 캠핑장에서는 외부 포트를 활용해 전기 그릴은 물론 에어컨까지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이오닉5'는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의 척도가 될 실내 공간의 새로운 활용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기본적인 상품성에서는 테슬라에 뒤질 것이 없다. 관건은 미래의 애플로 불릴 만큼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 테슬라로 향해 있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돌릴 수 있느냐다. 차별화된 자율주행기능과 소비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할 것인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		1	2	4		7		■
	■			1	3		■	
6		8				4		2
	7		■	8	■			4
5	6		3	■	9		2	8
2			■	5	■		7	
7		5				3		6
	■		4	6			■	
■		6		3	7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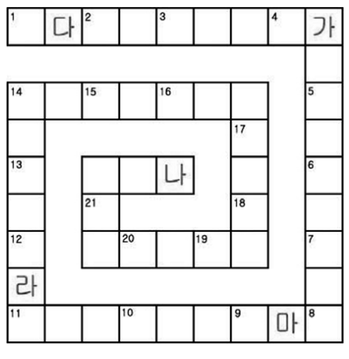
■	4		5		6		2	■
5	6			1			8	4
		■	4			■		
2			■	3	■	1		5
	9		1	■	5	6		
8		5	■	6	■			2
		■			2	■		
1	3			4			5	9
■	8		9		1		3	■

■ 스도쿠정답

8	4	6	5	3	7	2	9	1
3	9	2	4	6	1	8	5	7
7	1	5	9	2	8	3	4	6
2	8	3	1	5	4	6	7	9
5	6	4	3	7	9	1	2	8
1	7	9	6	8	2	5	3	4
6	3	8	7	9	5	4	1	2
4	2	7	8	1	3	9	6	5
9	5	1	2	4	6	7	8	3

6	8	4	9	5	1	2	3	7
1	3	2	6	4	7	8	5	9
7	5	9	3	8	2	4	1	6
8	1	6	5	7	9	3	4	2
4	9	3	1	2	5	6	7	8
2	7	6	8	3	4	1	9	5
9	2	1	4	7	8	5	6	3
5	6	7	2	1	3	9	8	4
3	4	8	5	9	6	7	2	1

■ 낱말문제



■열쇠

01.한의술과 한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02.조선 세조 2년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여섯 명의 충신. 03.몸과 머리털과 피부라는 뜻으로 몸 전체를 이르는 말. "ㅇ체발ㅇ" 04.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름. 05.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 06.고려와 조선 시대, 입추가 지나도록 장마가 계속될 때에 나라에서 날이 개기를 비는 제사. 07.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일. 'ㅇ반ㅇ' 08.병풍 따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독특한 풍경을 그린 그림. 09.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10.남의 훌륭한 점을 도와 더욱 완전하게 함. 'ㅇ인지ㅇ' 11.밀물과 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12.말을 타고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이루어진 무리. 13.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14.어떤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15.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천도교의 기본 사상. 16.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17.둥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를 왜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18.사람이 살지 않는 섬. 19.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종이. 20.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사게 만드는 가상의 신. 21.갓 결혼한 부부.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푼 다음 **가~마** 칸을 이어놓으면 드라마 제목이 됩니다.